

### 근대화 물결 속 한국불교 모습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동북아 삼국...' 발표회



국학진흥원재단 지정 중점연구소 불교문화연구원 중장발표회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와 불교계의 대응'

“일제가 한국불교를 행정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 1911년에 제정·시행한 사찰령 속에서 당시의 불교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선상에서 불교 발전과 종단의 근대화를 추진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은 2005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정에 따른 중장발표회를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와 불교계의 대응(I)'이란 주제로 8월 29일 동국대 계산관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표회에서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자신의 논문 '사찰령의 불교계 수용과 대응'을 통해 1910년대의 불교계의 사찰령 수용에 대한 인식화 과정과 변용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했다.

김 교수는 당시의 한국불교계가 사찰령에 대해 큰 저항과 무리 없이 그것을 정착·수용한 구조적 이유에 대해 '종단의 부재'를 들었다. 즉 당시의 상황에는 현재의 총무원과 종회처럼 종단기관과 조직 체계 없이 주지들의 연립사무소와 본산의 공동사무소뿐이어서 사찰령에 의거한 30본산제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사법을 만들어 한국불교를 총독부의 지배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김 교수는 또 "1920년대 중반 이후 승려의 결혼 보편화에서 보이는 일본계율의 수용과 사찰령에서 정한 본발사 구도를 인정하는 노선이 대체를 이뤘다"며 "이는 곧 사찰령이 정한 체제 및 구도를 받아들이면서 불교발전 및 종단 건설을 추구한 당시 승려들의 활동과 의식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회에서는 불교문화연구원 서재영 연구교수의 '승려의 입성 금지 해제와 근대불교의 전개' 불교문화연구원 김재만 연구교수의 '중국 근대 신불교운동과 <대승기신론> 논쟁' 불교문화연구원 한상길 연구교수의 '개화사상의 형성'과 근대불교 불교문화연구원 조승미 연구교수의 '근대일본불교의 여성교육비판' 등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 사지내 불법건물 '버젓이'

### 논산시, 개태사지 복원 위해 매입후 관리 안해

1983년 충청남도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개태사지. 고려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개태사지는, 당국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서 사지내 불법 건물 증축으로 모습을 잃고 있다.

개태사지 안에는 현재 당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된 '왕건영전 개태사지'라는 사찰이 있다.

이 사찰은 2001년도부터 개태사지 내에 있는 강동훈 스님의 가옥(나대지 포함해 약 1100평)을 사용하고 있다. 논산시는 '개태사지 발굴·복원사업' 일환으로 2003년 11월과 2004년 7월 2차에 걸쳐 원 소유자인 강동훈 스님으로부터 이 땅을 모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왕건영전 개태사지 주지 해산 스님은 2002년 현상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사찰을 증축했으며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해 나대지 1000평을 허가 없이 개발해 밭으로 만들었다. 개발과정에서 나온 주춧돌 등은 사찰 주변에 돌탑과 축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개태사지 인근에 위치한 천불사 주지 성원 스님은 사찰 수행 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무시한 채 개발을 하고 있는 '왕건영전 개태사지' 행위에 대한 민원을 문화재청과 논산시에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당국은 한차례만 공문을 보내 '원상복구명령'이라는 송방망이 처별만 내린 상태다.

문제는 2004년 '개태사지 발굴·복원사업' 명목으로 '왕건영전 개태사지' 대지를 매입한 논산시가 매입과 동시에 거주자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철거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도 어진 채 여전히 그곳에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보호와 매입에 관한 결재는 시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야하는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 선에서 전격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찰에서 당초부터 문화재 영향 여부 검토나 건축 변경신청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승인 후 현상변경과 개발을 했다"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스님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 같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은 사법처리가 원칙이지만 현실상 행정고처분명령이 오랜 관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지지 매입 후 주거인의

큰 죄가 아니겠지"라는 의식과 행정 당국의 송방망이식 처벌이 문화재보호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태사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개태사 주지 양산 스님은 "2011년에 개태사지 발굴·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왕건영전 개태사지"의 부분별한 개발로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된 사지지에 대해 뒤늦게 복원 계획을 세운 당국의 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며 당국의 인위적인 사지지 관리를 비판했다.

양산 스님은 또 "하루 빨리 개태사지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개태사지가 불교문화사적지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바란다"며 안타까워했다.

개태사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평정한 후 국가의 안녕과 중흥을 빌기 위해 건립한 국찰로 일컫어진다.

1900년대에 새로 세운 개태사 경내에는 개태사지 석불입상(보물 제219호)과 개태사지 5층석탑(충남문화재자료 제247호), 개태사 철화(충남민속자료 제1호), 석조(충남문화재자료 제275호) 등이 남아있다.

또한 상방산의 한 암자에도 개태사지 터에 있었던 석조불좌상 1구가 안치돼 있었고 이곳에서 출토된 청동제 반자는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글·사진/논산=노병철 기자



충청남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개태사지 내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주변의 주춧돌로 탑과 축대를 쌓아 사지지를 훼손한 '왕건영전 개태사지' 모습.

즉시(강제) 이주와 가옥의 즉시(강제) 철거가 원칙이지만 당시 도의적인 차원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었다"며 "조속히 이주통고 공문을 발송해 이주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김동현 문화재위원은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서 현상을 무단변경(증·개축)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8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재 훼손은

###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16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학관에서 제71차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보조사상이 현대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진강중학연구소 김경집 연구원의 '근·현대보조사상의 역사적 영향' 장

원대 이덕진 교수의 '근·현대 불교에 끼친 보조사상의 영향-근·현대 고승들을 중심으로-'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보조사상연구원은 최근 학술지 <보조사상> 제26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논문 5편과 일반논문 2편 등 총 12편의 논문을 실었다.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2>

#### 종교와 과학적 상식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 속에 살고 있다. 컴퓨터그래픽은 SF 영화는 물론 수백 수천 년 전의 역사 사극을 리얼하게 만들어 낸다.

인터넷에서 공양도 하고 예불도 할 수 있는 종교 사이트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쩌면 이러한 일련의 문명과 문화는 인간의 진화에 많은 영향을 줬지도 모른다. 다윈은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물체 또한 그에 맞는 적응과 진화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의 과학문명은 이러한 자연의 선택을 부정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사회적 혹은 종교적 상식은 에너지의 남용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석유를 포함한 화석 연료의 남

한 창조론의 도전은 끈질기다. 마치 진화론에 의해서 특정 종교가 부정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포유류에서 진화되어 왔다면 창조주가 흠에서 영혼을 불어넣음으로써 창조했다는 근본을 부정 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 종교에 비해서 불교의 관점은 매우 관대하다.

불교에서는 진화라는 현상을 특별한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어차피 육체(혹은 물질)는 실체가 없고 이를 관장하는 것은 오직 업이라는 인과의 법칙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인연의 그물로 파악함으로써 진화라는 현상조차도 무상의 그물내의 인연법칙 안에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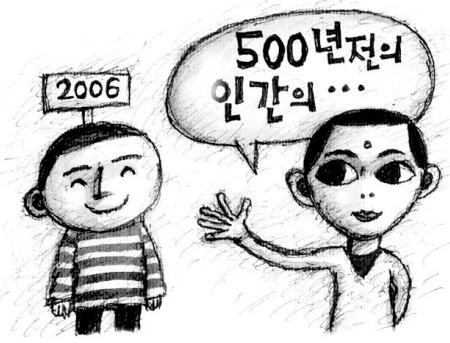
종교적 천재조차도 상식적인 경계에 근거한 오류를 범한다. 선객들이나

### 생명 원리 과학 등 과학자들 집념 종교와 배치 불교는 진화를 인연의 그물속 '무상존재'로 봐

용으로 지구의 이상기후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올 징후도 곳곳에서 보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과학의 발달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무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원자력 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 수소저장 기술을 연구한다. 또한 생물의 유전자를 바꾸어 인간이 원하는 특징을 가지게 하고, 생노병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불멸주아 연구에 매달린다. 이미 현재의 인간은 100년 전 인간과 달라져 있는 모습이다. 수백 년 후 인간의 모습은 지금 인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은 앞으로 끝없이 발전할 것이며 인간의 영혼조차도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 참된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인간, 자연, 우주의 아름다운 진화를 선도할 것인지에 고민하고 선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문병성

**(불자정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02) 2004-8213-6 (02) 732-1522 (直)
- 전송: (02) 737-0696
- e-mail: jabi1522@empal.com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2동
- 평수: 25평, 3층 건물 1층
- 가액: 보증금 4000만원 월 15만원
- 즉시법회가능
- 몸만 들어 오시면 됩니다
- 02) 304-3447
- 018-382-3448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사상구 주례동
- 평수: 40평
- 시설: 삼존불, 방2개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즉시 법회가능
- 051) 313-5589
- 010-6416-5589

**사찰 안내**

- 위치: 삼천포에서 5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약수물과 계곡물 철철 흐름
- 소원성취 기도도량
- 가액: 2억 1천만원
- 010-2666-1335

**임야 안내**  
(기도원, 연수원, 숙박장)

- 위치: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립공원 대문산 인근, 대전에서 30분
- 면적: 7만 3천평
- 가액: 평당 1만원/주인직거래
- 이용가치: 종교시설 기도원 및 연수원과 숙박장 최적지
- (수목 울창한 청정계곡, 포장도, 차량진입)
- 017-405-1554
- 042) 522-2588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도봉구 방학동
- 건물: 25평
- 삼존불 행차시설완비
- 가액: 전세 2800만원
- 시설비: 1000만원(월정액)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018-315-0108

**사찰 안내**

- 위치: 경주시 안강읍
- 대웅전, 문화재, 요사채, 대웅공양간
- 방 5개, 산신각, 염불전, 큰 거실 2개
- 가액: 답사 후 절충
- 054) 762-8677

**휴양처 (급) 안내**

- 대지 총 68평~44평
- 1층: 방 2, 홀, 주방, 거실, 화장실, 심야보일러
- 2층: 방 3, 화장실 2, 거실, 베란다
- 주소: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2리 76번지 삼내약수
- 하실분만 연락 바람
- 가액: 1억 2천만원
- 011-735-4316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소재 (서울 30분 거리)
- 대지: 175평, 법당 30평
- 요사채 현대식 (2층 건물)
- 가액: 3억 2천 만원
- 특징: 산과 도심이 어울리는 전망 좋고 교통편리한 곳입니다
- 016-510-3455

**사찰 (급) 안내**

- 서울 도심 속 아담한 절
- 상가 3층 건물 (옥탑사용)
- 법당 시설 A 급 확실히
- 보증금 800만원 (월 6만원)
- 시설권리금: 2500만원
- 011-458-2955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장림
- 2층 30평
- 삼존불, 지장불, 소불 200불
- 맹화 기타 제반시설 완비
- 가액: 전세 500 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010-2694-0621

**사찰 터 안내**

- 위치: 서울 중로구 삼정동 소재
- 대지: 70평
- 건물: 85평 (1, 2층) 작은 정원 및 외곽지역
- 소나무 대문 앞
- 복합인 자라 도심속의 전원주택
- 명상, 요가센터, 갤러리 등으로 적합
- 011-335-9663
- 011-669-0964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팔자(사주팔자)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족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영가이트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조상대대 천축, 영적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인간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백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 334-9490, 334-9519